

### 도원 스님, 원주불교聯 회장 취임

천태종 원주 성문사 주지 도원 스님(사진)이 신임 원주불교사암 연합회장에 취임했다. 원주불교사암 연합회는 3월 15일 성문사 대법당서 '제15대(적천)·16대(도원) 회장'이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을 비롯해 원창목 원주시장, 이상현 원주시회의위원장, 이강후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원주는 영서지방의 중요한 포교 거점이며, 원주 불교는 모두가 원주의 문화·전통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며 "원주불교사암연합회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가르침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 책방 '비움과 소통' 개원



김성우 도서출판 비움과소통 대표는 3월 19일 서울 구로동에 책방 '비움과소통' 문을 열었다. 책방 '비움과소통'은 불교서적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다. 새 책 뿐만 아니라 중고책, 절판(품절)책 등을 구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새 책은 10%, 중고책은 20~70%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다. (02)2632-8739

노덕현 기자

### 석산 스님 3월 19일 영결식 엄수

만일염불회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어산장 지봉당 석산 스님 영결식이 3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정법사 극락전에서 대한불교(재)선학원 재단장으로 엄수됐다.



1919년 기미년에 출생한 석산 스님은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37년 건봉사에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인 보광 스님은 만일염불회의 법통을 계승한 대연 스님의 제자였고, 이런 스승의 영향으로 염불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또한 교학은 만해 스님에게서 수학해 선교와 염불을 통섭하기에 이르렀다.

석산 스님은 6.25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7년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시봉했다. 석산 스님은 1960년 삼각산 복천암이라는 암자가 있던 도량에 지금의 정법사를 세우고 평생의 주석처(住錫處)로 삼았다. 스님은 세남 90이 넘어도 매일같이 염불정진, 포행, 축원, 사경 등을 거르는 일이 없었다. 스스로 주석처인 정법사를 무문관으로 삼아 사시사철 밤낮으로 365일 안거했다. 스님은 정진 끝에 3월 15일 임종계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신성민 기자

# “불교 내부 양심 목소리 내겠다”

## 재가연대 신임 상임대표 허태곤 씨

“불교 내부 양심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 역시 지나치게 작습니다. 스님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재가자라도 그 일을 해야죠. 불교 내부에 산적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정체성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14일 참여불교재가연대 7기 상임대표에 선출된 허태곤 씨(우리는선우 감사, 두보식품 대표)가 재가연대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써 침체돼 있던 단체 활동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참여불교재가연대 미래특별위원회원으로 활동해오면서 단체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사실 미래특위가 꾸러진 것도 재가연대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나날이 줄어드는 회원 수도 문제였지만 건물 매입시 은행에 쪼들 빚 문제가 더 급했다. 지금은 건물 일부를 매각해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상태. 허 대표는 이대로 재가연대가 힘을 잃으면 재가운동 동력역시 상실, 좌초돼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표직을 수락하게 된 데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허 대표 스스로 느꼈던 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사실 최근 들어 재가연대는 불교계에서 굵직한 사건이 '타탈' 때 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동국대 총장 선거가 파행



## 회원이탈·재정난 등 재가운동 위기 정체성 재정립하고 회원배가운동 개혁 성격의 불교단체와 연대 계획

됐을 때도, 해인사 방장 선출에 잡음이 있을 때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송담 스님이 조계종 탈종을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임 공동대표간 사안에 대한 입장차도 있었고 회원 역시 이탈하면서 체력이 방전됐던 것이다.

허 대표는 “재가자들이 스님들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다는 걸 스님들이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재가연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안타까워했다. 허 대표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은 이번

에 선출된 공동대표들이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규 교단자정센터 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김형남 교단자정센터 대표, 김윤이 불교아카데미 이사 등 줄곧 불교 내 개혁을 주장하던 이들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다.

조직이 재정비된 만큼 허 대표는 이들과 함께 재가연대 정체성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꾸릴 생각이다. 조만간 현재 재가연대 역량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직은 미래 비전에 대한 초안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과 협력해 역량을 끌어올릴 준비도 하고 있다. 참여불교 정신에 기초한 불자들의 연대체로서 역할을 공고히 다져나갈 생각이다.

허 대표는 2백여명에 지나지 않는 회원들도 배가운동을 실시해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해 초창기 회원들과 불교아카데미 리더스클럽, 개척자 학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연대 홍보에 나서, 올해 말까지 회원수 5백명 확보를 위해 전력할 생각이다. 현재 진 5억원 가량의 빚은 회원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청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3년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으며, 현재 우리는선우 감사, 성균관주기념사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배현진 기자

### 세계불교법왕청 지도자협회 개최



(사)세계불교법왕청(대승정 목탁)은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공동주최로 3월 18일 AW컨선센터 대회의장에서 '한국불교 380여 종단 지도자 하례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장 목탁 스님, 정갑윤 국회의장, 정암, 각성, 불원, 현담, 혜정, 법해, 성각, 정은, 진성 스님 등 스님들과 국제불교봉사회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대한불교108종정연합회,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의 회, 한국불교고승장로단 등 8개 단체는 한국불교가 하나됨을 목표로 초발심으로 거듭나자고 다짐했다.

정갑윤 국회의장은 “불교 스스로가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며 불원대종사를 비롯한 20여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02)733-5665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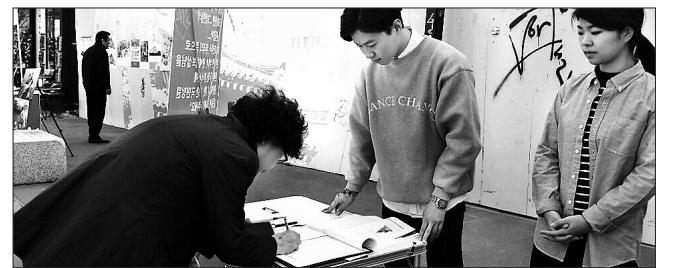
### 응공조계종 자비의 쌀 전달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은, 총본산 동명사)은 3월 13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사무소(면장 박용문)에 쌀 20kg 30포를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은 스님, 원로회의 의장 동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석사 관음보살상 봉안 서명운동



서산부석사불상봉안위(위원장 주경은)는 3월 13~15일 청년모임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와 함께 인사동 붓광장과 조계사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부석사불상봉안위는 1월 7일 서산시청에서 발대식 후 서산시청, 부석사와 수덕사, 충남도청, 대전시내에 이어 서울시내에서 거리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부석사불상봉안위는 20일까지 받은 서명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하고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부석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 친견법회'를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법정 스님 5주기 추모 법회 열려

3월 16일 길상사 설법전서... 7백여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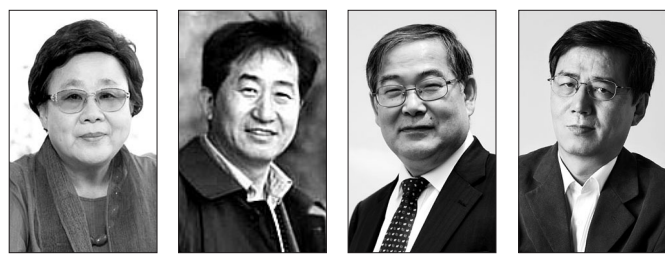
법정 스님의 5주기 추모 법회가 3월 16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주지 무상 스님, 법정 스님의 속가 조카 현장 스님,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길상사 주지 덕은 스님(참고 향기롭게 이사장)은 “은사 스님 입적이 어느덧 5주기를 맞았다. 은사스님의 죽비 같은 말씀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절”이라며 법정 스님의 영상법문(2009년 4월 19일 불 정기법문)을 소개했다.

이어 법정 스님과 반제기를 같이 지낸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의 추모법문과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문도 대표 덕조 스님은 “스님은 꽃피는 3월을 좋아하셨고 가실 때는 봄에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3월에 떠나셨다”며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덕은 그대로 살아있다. 스님 뜻을 기려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가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 제 20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남지심·시인 전기철 씨 등... 4월 25일 시상식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제20회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부문 및 수상자는 △시 부문에 전기철, '구름의 가장자리' <현대문학> 2014년 9월의 4편 △시조 부문에 이지엽 '세상의 모든 어머니' <문학사상> 2014년 1월의 4편 △소설 부문에 남지심 <우담바라>(고려원 1987, 푸른숲 2001) △평론 부문에 이경철 '21세기 시조 창작과 비평의 현장' (교양아침 2014) 등이다.

심사는 이승훈 시인(현 안양대교수), 문태준 시인, 유자호 시인, 홍성란 시조시인, 이경자 소설가, 장영우 평론가(동국대 교수), 오세영 시인(전 서울대교수), 최동호 시인(평론가, 전 고려대교수) 등이 맡았다.

시상식은 4월 2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포럼장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패 각 1000만원이 수여된다.

정혜숙 기자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6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단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악사요...

###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 스프로션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재널A 그 여자 그 남자
- MBN 한정르 특종세상
- tvN 심령솔루션
- tvN 심령솔루션 엑스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